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25권 2호(2017): 45-81

http://dx.doi.org/10.17841/jocag.2017.25.2.45

성경적인 성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안 경 승*

국문초록

기독교상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훼손되었고 이제 회복해야할 온전한 인간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상담의 현장에서 지향해야할 거시적 목적으로 하나님 형상의 복원을 생각한다. 논문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서 인간 회복의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선 성의 전인적 성격을 강조하며 성적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발전하는 현실과 그 원인(영적, 사회문화, 가정, 교육과 상담)을 살펴본다. 성에 대한 연구가 기독교 상담현장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의 "우리" 개념을 확대하여 연구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우리"의 이해가 남자됨과 여자됨 그리고 관계성 이해에 근거가 된다는 본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지만 하나를 이루는 성적 존재라는 것, 둘째, 남자와 여자는 동역자로서 동등하다는 것. 셋째, 각자의 관계방식을 통해 교제하고 성적 차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성적 차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지면 관계상 남성다움에 대한 몇 가지 요점만을 정리한다. 기억하고 책임지는 남자와 힘과 용기를 가진 남자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 남성 창조의 목적임을 밝힌다.

주제어 : 남자, 여자, 하나님 형상, 성정체성, 남성다움

• 논문 투고일: 2017년 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2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하나님 형상 개념과 기독교상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두 가지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회복과 치유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연구이다. 심리학은 주요 연구 대상을 인간으로 삼고 과학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방법론으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 인간을 이해하는 폭넓은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됨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기독교상담은 상담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로 내담자의 하나님의 형상에로의 성숙을 지향한다. 이 목표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은 성취되어야 할 인간 회복의 설정지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변화과정을 그려내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담대상의 이해와 상담목표의 설정을 위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 성적 존재(gendered bearers)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다. Larry Crabb은 "성이 우리 존재의 핵심을 이룬다.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우리의 존재에 번복 불능이자 폐기 불능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나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남자이고 여자다"라는 것 보다는 "나는 남자인 인간이다" "나는 여자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1)]

본 논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되는 성적 자기 정체성이 온전한 인간됨의 내용이자 중요한 목표라고 전제한다. 이것은 성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영역

1) Larry Crabb, *Fully Alive*, 윤종석 역, 『에덴 남녀』(서울: 복 있는 사람, 2014), 22.

www.kci.go.kr

으로 기독교상담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 고려해야할 영역인 것을 의미한다. 우선 성과 관련된 왜곡된 문제와 그 원인을 살핀다. 이것은 기독교상담자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성과 성정체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됨에 대한 가감할 수 없는 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성정체성의 내용 중에서 남성성을 세분하며 지향해야할 온전한 남성다움을 구분한다.

II. 펴는 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성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성이 성행동을 포함하여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생물학적인 차원과 함께 그 사람의 인격(생각, 감정, 행동), 사회 · 문화적 영역과 영적 차원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성의 이러한 전인적 측면으로 인해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1. 왜곡된 성과 그 원인

인간의 성이 왜곡되고 비인간화되는 현상은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계몽주의 이후 계속되어온 세속화의 결과이다. Stanley J. Grenz는 성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세속화로 인해 성에 대한 신앙적이며 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성을 오직 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은 성에 대한 과거의 관점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신학적 세계관의 서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래 성적 차원은 인간의 전체적 측면으로 이해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www.kci.go.kr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고 통찰한다.[2] 이제 성은 탐욕과 순간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여 관계상의 고통, 정서적 상처와 육체적 피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심화되는 성의 왜곡과 문란은 성폭력으로까지 발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귀함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면 첫째, 출발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결과(창 2-3장: 죽음, 잉태의 고통, 힘든 노동, 남녀관계의 갈등 등)로 인한 것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 우선적으로 성적 존재로서의 남녀의 만남과 그 만남의 현장인 가정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창세기는 여자와 남자의 주도권 다툼이 생기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결과 중의 하나로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는 선포를 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원한다"(desire)는 말은 "경쟁하다, 억지로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주관하려고 하다"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3] 또한 "다스릴 것"이라는 단어는 "군림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남자와 여자가 동역자와 동료로 함께 팀을 이뤄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독재적 권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언어와 주제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죄는 가인을 공격하기 위해 "거칠게 달려들고 휘잡기 위해 기다리며 가인의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친 동물로 묘사"된다.[4]

---

2) Stanley J. Grenz, *Sexual Ethics*, 남정우 역, 『성윤리학』(서울: 살림, 2003), 28.

3) John Piper, "A Vision of Biblical Complementarity: Manhood and Womanhood Defined according to the Bible," in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eds. John Piper & Wayne Grudem(Wheaton, IL.: Crossway Books, 1991), 29-31.

4) Wayne Grudem, "The Key Issues in the Manhood-Womanhood Controversy, and the Way Forward," in *Biblical Foundations for Manhood and Womanhood*, ed. Wayne Grudem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2), 32.

www.kci.go.kr

그런 죄가 가인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죄를 다스려야할 것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구별 자체는 죄의 결과나 문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의 사실이다. 하나님은 상호보완의 동역 가운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구현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죄가 남녀 간에 다툼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고 성의 역할 역시 모호하게 되었다. 타락으로 인해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남자는 여자를 힘과 더 나아가 거칠게 대하는 권위의 오용을 남발하게 된다. 이후로는 남녀의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존속살해(창 4:8), 일부다처체(창 4:19, 23), 성과 관련된 악한 생각들과 말들(창 9:22), 간음(창 16:1–4), 동성애(창 19:4–11), 간통과 강간(창 34:1–2), 근친상간(창 38:13–18), 매춘(창 38:24), 성적 유혹(창 39:7–12)이 시작된다.[5]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성의 타락은 시대가 흐르며 더욱 여러 모양으로 뒤틀어지면서 남성우월주의를 포함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성향, 남녀의 관계를 파괴하는 뒤틀어진 가치, 성의 오용과 남용으로 만연한다.

둘째, 성의 왜곡과 관련하여 사회 · 문화적 요인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가치가 잘못 형성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한국 사회와 문화의 경우 현대화와 함께 남녀의 인식과 이해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남성을 지배적이고 우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남존여비사상, 남성우월주의, 성차별 같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지속되어 왔다.[6] 이로 인해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성폭력과 같은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의학과 기술문화의 발전으로 성과 연관된 병에 대한 두려움 감소, 임신에 대한 염려에서의 자유 등으로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쾌

5) Piper, “A Vision of Biblical Complementarity,” 33.

6) 권명수, “새 천년 한국 남성의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권(2002): 101.

www.kci.go.kr

락만을 목적으로 한 성이 자리 잡았다.[7] 또한 현대 문화의 상품화된 성에 대한 이해는 왜곡된 성행위와 육체만을 중심으로 한 성을 조장하고 있다.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동영상, 책, 잡지, 신문 등에서 전달되는 성의 홍수 속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성 의식 역시 잘 · 잘못 여부를 불문하고 전달되고 있다. 성의 상품화는 인간성을 추락시키고 성의 소중함을 왜곡시키며 성문란, 성폭력과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가정의 요인이 있다. 성정체성의 인식과 성숙을 위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현장이다. George A. Rekers는 19년 간 백여명 이상의 자녀(3세에서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부모는 가족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역할하며 아들은 남성다움 방식으로 행동하고 딸은 여성다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들의 표준적인 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8]

가정에서의 부모의 잘못된 성 역할 모델의 영향은 성정체성 형성에 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릇된 하나님의 형상됨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동성애이다.[9] 동성애의 여러 원인 중에 가정 내의 잘못된 역할 모델이나 모델 자체의 부

---

7) Grenz, 『성윤리학』, 29. 이러한 흐름 이면의 사상은 포스트모던이즘(postmodernism)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로 인해 절대적 진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성의 개념 역시 상대화, 다원화 그리고 세속화된다.

8) George Alan Rekers, "Psychological Foundation for Rearing Masculine Boys and Feminine Girls," in *Recovering Biblical Manhood & Womanhood*, eds. John Piper & Wayne Grudem(Wheaton, IL.: Crossway Books, 1991), 296.

9) 조사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39%였다. 아직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지만(39% vs 59%), 이는 2007년의 조사 때의 18%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2017년 8월1일 접속, 해당싸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성소수자_권리.

www.kci.go.kr

재가 언급되고 있다.[10] 적대적인 아버지와 함께 한 딸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반감을 갖게 되는 동시에 남성보다는 다른 여성에 대한 친밀감이 싹트게 된다. 또한 통제욕구가 강한 어머니는 아들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하고 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은 다른 여성들에게 전이된다. 아들은 다른 여성에 친밀감을 느끼며 관계를 맺기 보다는 남성을 향한 성적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된다.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족들이 함께 한다고 해도 시간과 장소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역할 모델이 사실상 없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외부 활동에 집중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며 남성상 자체의 경험이 단절되고 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회 · 문화적 환경에서 제공하는 단편적 역할 모델들로 인해 폭력적인 남성상이나 극화된 여성상을 학습한다.

넷째, 성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의 부재 역시 또 다른 원인이 된다.[11] 성은 인간의 속성이기에 모든 삶의 영역과 현실에 연관되어 있

10) 길길원평 · 류혜옥, "동성애 유발요인과 기독교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4호(2013): 34.

11)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인간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 형상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주로 상담의 신학적 근거를 찾는 시도를 했는데 Adams는 하나님 형상(특별히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인간론 부분에서 설명하나 성에 대한 설명은 없고, Collins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구별하며 관계성, 통치, 책임과 함께 성을 일부 소개한다.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전동식 역, 『상담신학』(서울: 기독신보출판사, 1990), 133-172;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헌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38-144. 근래에는 McMinn과 Campbell이 통합적 치료를 위한 근거로 하나님 형상(기능적, 구조적, 관계적)을 활용하지만 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Lambert가 성경적 상담의 교리적 토대를 확인하면서 남성됨과 여성됨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정리한다. Mark R. McMinn & Clark D.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전형준 · 남병철 역, 『통합적 심리치료』(서울: CLC, 2016), 45-59; Heath Lambert,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6), 204-207.

www.kci.go.kr

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를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상담 현장에서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통찰로 인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12] 남성 상담자의 경우 그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자신의 가치가 상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 중의 하나는 성을 sex와 gender로 구분하는 것이다. 성(sex)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사회적 성(gender)은 학습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긍정적으로는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천성적인 것과 학습화된 것을 분별해 보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라는 기준이 없는 경우 어떤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가 모호해 지고 시대적 강조점이나 이념에 의한 가변적 이해에 그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때 조금 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인간 창조를 기술하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증거한다.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12) 이관직,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심리체계적 접근,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권(2002): 152.

www.kci.go.kr

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창조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된 것은 인간 뿐이다. 인간 이외에 천지만물, 동식물, 다른 어떤 영적 존재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1) 하나님 형상으로 본 인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닮고 있느냐 하는 연구는 여러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전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연구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묶어서 볼 수 있다.[13] 첫째, 구조적 관점으로 강조하는 바는 인간 안에 하나님과는 같고 다른 피조된 존재와는 다른 어떤 인간 본성의 구조 내지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간 존재됨의 핵심인 마음(mind)과 심령(heart)을 포함하는 영혼(soul),[14]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확인된 언어와 사고 능력, 그리고 인간이 성숙하면서 갖게 되는 인격적 특징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둘째, 관계적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해이다.[15]

---

13) Bruce A. Ware, "Male and Female Complementarity and the Image of God," in *Biblical Foundations for Manhood and Womanhood*, ed. Wayne Grudem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2), 72-75.

1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288-290.

15)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특별한 관계에 참여할 때에 드러난다고 보는 것으로 인간이 "관계를 체험하는 것(the experience of a relationship)과 "대면(confrontation)"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Otto Weber, *Karl Barth's Church Dogmatics*, 김광식 역,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28;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52), 55-57.

www.kci.go.kr

인간 본성의 어떤 측면보다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Anthony Hoekema는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적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차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존재는 남성으로서는 인간은 본질상 자기와 같으면서도 신비롭게도 자기와 같지 않은 인간인 여성과의 공동협력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셋째, 기능적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창조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섭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필요로 하고 그 기능으로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Hoekema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구조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기능이 세 가지 관계 영역(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 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수행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고 정리한다.[17)]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반영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각각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성적 존재 사이의 교류와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남자와 여자

창 1:26에 등장하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서 "우리"가 누구

---

16)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69.

17)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67.

18)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동섭은 다소 원론적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임을 밝히고 있고, 심수명은 인격교육을 위한 신학적

www.kci.go.kr

인지에 대한 논의는 성경 해석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 대한 이해가 내포한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복수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그 누군가가 창조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우리 안의 교제가 이뤄지는 것과 같이 인간 역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우리" 개념은 신학적 용어인 삼위일체로 설명된다. 권문상은 복수인 삼위이시면서 단수인 일체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인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복수로 존재하면서 상호 인정, 상호 의존, 상부상조의 관계 속에서 '연합된 하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계신다".[19] 바로 이러한 우리 됨의 첫 번째이자 영속적인 모델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은 것이다. Calvin이 해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만드시는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인간을 만드시려 할 때 삼위 사이에 토의를 하셨다.[20] 그리

모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동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 침례신학대학교, 「복음과 실천」 제19집(1996): 421-440; 심수명,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개념 및 그 적용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2006): 200~234. 표현은 유사하나 내담자의 내적 하나님 이미지에 초점을 모으면서 접근하는 연구가 복음주의권에서 시도되었다. 전요섭,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321~346; 김영희, "크리스천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 God-images를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9권(2007): 31~67; 김성환,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126-150;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56-189; 심정연,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4권 2호(2016): 183-219.

19)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서울: 킹덤북스, 2013), 251.

20) John Calvin, *Genesi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5), 91-92.

www.kci.go.kr

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다시말해 복수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21)]

>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며 여자는 남자에게로 유래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본질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창조되었지만 서로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는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피조되고 유한한 동일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무한한 동일체의 모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22)]

성별은 사회적 내지 문화적 영향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래적 속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상호 교제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통해 드러났다면 동일한 측면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각기 구별된 그러나 하나를 이루는 두 실제라는 사실, 둘째, 동역자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 셋째, 교제를 하는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관계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원리는 성에 대한 추가적 가르침을 준다. 즉 "상호 교제를 위하여 각각 다르게 정해 놓으신 성적 차이가 있고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23)]

---

21) Stephen Rees, "여성 해방론이 신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Men, Women an Authority*, 이은순 역, 『남성과 여성』, Andrew Anderson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56-157.

22) Rees, "여성 해방론이 신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157.

23) Joseph C. Atkinson, *Biblical & Theological Foundation of the Family: The Domestic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4), 56.

www.kci.go.kr

3.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세 가지 이해

1) 구별되지만 하나를 이루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구별되시면서 일체로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우리"로 존재하신다. 그 형상을 부여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며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하나이다. 남녀의 구별은 역할 면에서뿐만 아니라 천성적인 면에서도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결정 요소가 인간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성의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지만 상호적인 보완역할을 하며 하나를 이루게 된다.

남녀가 동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브를 처음 본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23절)고 말한다. 아담은 처음으로 자신과 여러 면에서 동질성을 가진 또 다른 존재를 인식했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닮은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을 탄성을 지으면 표현한다.[24] 그러나 동질의 부분과 함께 구별된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로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 기원의 동질적 하나됨에만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왜곡된 인간학을 만들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을 양성인(androgyny)으로 보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관련하여 유대교 전통에서 제시되는 해석 중의 하나는 "인간이 본래 양성적 존재로 지어졌고 이후에 성이 분리되었다"는 것이다.[25] 그리고 현재에도 다른 근거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양성적 존재로 전제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성장과정 가운데 사회 문화적 영향에 의

---

24)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8), 98-103.

25) Gordon J. Wen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es 1-15* (Waco, TX.: Word, 1987), 33.

www.kci.go.kr

해서만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다.[26] 상대주의적 인본주의자 같은 경우 유니섹스를 주장하며 창조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성역할 경계의 개념을 거부한다.[27] 분석심리학자인 Carl Jung 역시 인간을 양성적 존재로 본다. 그는 남성 속에 여성적 요소, 여성 속에 남성적 요소를 각각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로 설명하며, 구별보다는 동일함, 조화, 균형을 강조한다.[28]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얕은 차원의 내면화(억압된 기억)라기 보다는 더 깊은 내적 인격으로서 원형에 속한다. 이들이 발달하면서 외적으로는 이성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주고 내적으로는 이성의 성향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다고 본다.

그러나 창세기 창조기사는 인간을 양성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증적 연구 역시 남녀의 구별을 말한다. 인간은 시작부터 성 구분이 된 존재(창 1:27)이고 이로 말미암는 결과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28절)는 말씀도 적시되고 있다. 여러 연구는 인간이 생식 능력의 성숙으로 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심층 차원에서 성적 지향성을 본래적으로 가졌다는 점을 증명한다.[29] 인간의 성적 구별은 생식 능력보다 앞설 뿐 아니라 생식 능력의 감퇴 이후에도 성적 존재로 남게 된다. 또한 사회와 문화가 인간의 성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성(sex)의

---

26) 심리학자인 Sandra L. Bem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사실상 성에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에 대한 검사지(Bem Sex Role Inventory)를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양성성을 주장한다. Sand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1974): 155-162.

27) Rekers, "Psychological Foundation for Rearing Masculine Boys and Feminine Girls," 295.

28) Ann Belford Ulanov,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37.

29) Grenz, 『성윤리학』, 37.

www.kci.go.kr

차이가 있다.[30]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회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몸의 창조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래 활발하게 이뤄지는 뇌에 관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뇌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각 성의 독특함은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일 뿐 아니라 그런 차이로 인해 서로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성과 관련된 인간의 생물학적 연구는 해부학적, 화학적, 호르몬, 생리학적 접근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남성됨과 여성됨의 구별을 가져오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호르몬이다.[31]

성호르몬(남자의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과 여자의 에스트로겐: estrogen)은 생애 초기에서부터 여러 방식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임신 기간 동안의 테스토스테론의 차이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발달을 창조하는 신경계의 변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호르몬이 뇌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여겨지고 있다.[32]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분해하거나 신경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뇌량 부위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에스트로겐은 좌뇌와 우뇌가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세포를 자극한다. 그 결과 양쪽 뇌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뇌량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은 뇌량을 갖고 있고 무의식적인 일처리 면에서도 더 나은 능력을 발휘

---

3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Walt Larimore & Barb Larimore, *His Brain, Her Brain*, 임신희 역, 『그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vs.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서울: 살림, 2008), 23–47와 함께 근래의 성격심리학의 주요 교제들에서 다뤄지고 있다.

31) Roger A. Gorski, "Sexual Differentiation of the Brain," *Hospital Practice* 13, no.10(1978): 55–62; Larimore & Larimore, 『그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vs.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 40에서 재인용.

32) Charles S. Carver & Michael F. Scheier, *Perspectives on Personality*, 7th ed., 김교헌 역,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서울: 학지사, 2012), 258.

www.kci.go.kr

하게 된다.[33)]

이외에도 행동, 동기, 기분으로 나타나는 성별차이에 기여하는 세 가지 다른 호르몬으로 옥시토신(oxytocin)과 바소프레신(vasopressin), 도파민(dopamine)이 있다. 옥시토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활발한데 어머니들이 아기를 돌볼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감정적 관계를 맺기 쉽게 해 주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친교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34)] 바소프레신 활동은 남자의 성호르몬에 의해 고조되며 남자아이와 성인에게 더 활발하다. 공포감을 누그러뜨리고 고통을 참는 능력(pain threshold)을 높이며 동물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활동 수위가 높은 남자아이와 성인이 신체적 공격성을 더 자주 과시하게 된다. 도파민 반응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선조체(線條體, striatum: 쾌감에 기여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의 분출이 더 많아지고 흥분감을 더 강하게 느꼈다. 새로운 사건을 즐기는 남자에게 도파민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드러났다.[35)]

호르몬이 신경세포와 뇌 발달에 주는 영향 외에도 남자와 여자의 뇌는 구조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좌뇌(언어, 논리, 분석이 활발함)와 우뇌(정서, 직관, 창조, 통합이 활발함)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여성은 우뇌보다는 좌뇌를 사용하는데 익숙한 남성보다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남성은 여기에 미숙하므로 더 분석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자의 뇌는 회색질(생각 물질)을 6.5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뇌는 백색질(처리 물질)을 9.5배 더 가지고 있다. 여자는 두개골 사이에 남자보

---

33) Larimore & Larimore, 『그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vs.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 39–40.
34) Jerome Kagan, *The Temperamental Thread*, 김병화 역, 『성격의 발견』(서울: 시공사, 2011), 153.
35) Kagan, 『성격의 발견』, 155–156.

www.kci.go.kr

다 상대적으로 더 큰 연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완전한 백색질로 이루어져 있다.[36] 결과적으로 여자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서로 다른 방식을 더 잘 연결시킬 수 있고, 직관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 반면에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주관이 강하고 결단성 있고 목표 지향적이다.

염색체와 관련해서는 여자들이 가진 두 개의 X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활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체세포의 절반에서 대개 비활동성이다. 그런데 어떤 X 염색체가 비활동성인지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여성에게는 X염색체가 두 개 있는 반면 남성에게는 하나만 있는 것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져온다.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X염색체의 대립유전자가 남자들에게서는 완전히 발현되지만, 여자에게는 X염색체 하나가 비활동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현되지 않는다. 이것이 유년기 초반에 나타나는 자폐증, 언어장애나 운동 지체가 남자에게 더 많은 이유이고 이것이 충동적 행동을 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37]

더나아가 인간의 성은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생활방식과 관련해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이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 심리를 다룬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세계를 다르게 보고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동섭은 심리학과 문화인류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한다. ①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다른 욕구, 동기와 목적, 가치, 충동, 반응,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다른 방식, 행동하고 반응하는 다른 방식 등)

---

36) Elizabeth Heubeck, “How Male and Female Brains Differ: Researchers Reveal Sex Differences in the Brain’s Form and Function,” accessed on September 09, 2017, available at: www.medicinenet.com/script/main/art.asp?articlekey=50512.

37) Larimore & Larimore, 『그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vs.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 45.

www.kci.go.kr

②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남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중심적), ③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④ 남자와 여자는 관심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남자는 객관적이고 지적이며, 여자는 주관적이고 감정적), ⑤ 남자와 여자는 대화방식이 서로 다르다(남자는 사실과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하고 여자는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얻기 위하여 대화), ⑥ 남자와 여자는 정서반응이 다르다(남자는 감정을 억제하고 여자는 감정을 표현함), ⑦ 남자와 여자는 대화유형이 서로 다르다(남자는 보고하기 위한 대화이고 여자는 공감하기 위한 대화).[38]

2) 동역자로서 동등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들(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39] 그들은 똑같은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신성한 완전함에서 동등하다. 역할적인 순종이 있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 내의 삼위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 영적인 동등함을 무력하게 하지 않는다.[40] 동일한 원리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적용된다. 여자는 남자의 본질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존엄성에서 남자와 동등하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분의 아들을 공경해야 하며(요 5:23; 계 5:6,13) 동일하게 남자를 공

38) 정동섭, "남성심리와 여성심리", 침례신학대학교, 「복음과 실천」 제17집(1994): 408-424. Parrott 역시 남녀가 함께 있어도 두 개의 세계가 각각 존재한다고 하면서 다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남자에 대해 여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감정에 둔하고, 독립적이며 추상적이라는 사실이고 여자에 대해 남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현재와 바로 여기를 중시하는 것,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Les Parrott & Leslie Parrott, *Real Relationships*, 서원희 역, 『5가지 친밀한 관계』(서울: 이레서원, 2011), 99-105.

39) James I. Packer, "God," *The New Dictionary of Theology*.

40) Sheila Stephen, "여성은 다르다", *Men, Women an Authority*, 이은순 역, 『남성과 여성』, Andrew Anderson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40.

www.kci.go.kr

경하듯이 여자를 공경해야 한다. "우리" 안의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의 근거를 몇 가지로 찾아본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 의미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표자 이자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이다.[41]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인 문화 명령이 남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함께 주어졌다. 다스림과 관리를 남녀가 같이 한다는 점에서 남녀 동등성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42]

또한 창세기 2장 18-25절의 본문 연구를 통해서 남녀 동등성이 논증된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עֵזֶר כְּנֶגְדּוֹ)을 주신다고 하신다. 여기 돕는다는 에제르(ezer)란 단어가 구약에 19번나오는데 그 중 16번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삼상 7:12, Ebenezer)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다(시 33:20, 70:5, 115:9 등).[43]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할 때 쓰인 단어가 여자를 짓기도 전에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힘이 강한 군대가 도우러 오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 또한 에제르는 현대적 이해에서 연상되는 종속적 개념이나 상하관계

---

41) 김세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왕(副王)"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 부왕 역할이 남자에게만이 아니고 남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남녀 동등성을 명백히 천명하는 신학적 언명이라고 말한다.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서울: 두란노, 2016), 18.

42) Mary Stewart van Leewen, *Gender and Grace*, 윤귀남 역,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서울: IVP, 1999), 47.

43) 시편기자 역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시 70:5) 그리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2)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Phyllis Trible, "Eve and Adam: Genesis 2-3 Reread," in *Woman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 eds. Carol P. Christ & Judith Plaskow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79), 75.

www.kci.go.kr

적 만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에제르는 "구원하는 자", "구조하는 자", "구하는 자"의 도움을 말한다.[44] 이 단어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행동, 피를 흘리는 사람을 도와 목숨을 구하는 행동과 같은 도움을 말한다. 돕는 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가 남성의 우월성을 논하는 근거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배필(knegedo)은 짝(mate; counterpart)이란 뜻을 가졌고 그 형용사적 활용에서는 "적합한", 또는 "동등한"(fit for; suited to; equal to; meet for)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는 "짝을 맞출 때 두 편이 꼭 맞는다"는 의미로 그 둘 사이의 대등성과 상호성을 내포한다.[45] 한 주석가는 이렇게 정리한다. "이 문맥에서 그 단어는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듯 하다. 여자는 남자가 창조될 대 그 설계에서 부족했던 것을 공급할 것이다. 비록 여기에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 남자가 그녀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의미도 뒤따른다".[46]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하여 창조하였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취해지고 아담에게로 이끌려 온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이 드러났다면 창세기 2장은 그 동등성이 동질성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47] 동등하지만 상이하고 이 상이함으로 인해 양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온전히 드러나고 남자와 여자는 상대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

44) Raanan Eichler, "Gender Equality at Creation," *The Torah*, accessed on August 25, 2017, available at: http://thetorah.com/gender-equality-at-creation.

45) Phyllis Bird, "Images of Women in the Old Testament," in *Religion and Sexism*, ed. Resemany R. Rueth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74), 72.

46) Michael L. Rosenzweig, "A Helper-Equal to Him," *Judaism* 35. no.3(1986): 277-280.

47) Stephen Sapp, *Sexuality the Bible, and Scienc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7), 10; John R. W.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9), 312.

www.kci.go.kr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만드신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를 통해 창조주로서의 그 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혀 드리는 사랑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며, 자신과 상대에게 부여된 독특한 면을 누리려 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졌다.

둘째, 삼위 중의 한 분이신 예수님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셨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녀를 만나면서도 수치를 들추지 않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신다(요 4:7-30). 예수님은 그 분의 여정과 배움의 현장과 사역을 여자와 함께 하셨다(눅 8:1-3, 10:39).[48] 이혼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여자의 권익을 보호했고(마 5:31-32; 막 10:2-9), 여자를 복음의 첫 선포자로 세운다(마 28:1-10).[49]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 · 적용한 바울 역시 남자와 여자의 창조기사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심화시켜 표현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1-12).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고 동등(갈 3:28)하며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의 관계이다.[50] 우리는 사람을 인종이나 계급 또는 성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구별해서는 안 되고(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종과 자유인 또는 남성과 여성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된 것으로 생각해

---

48) John Ortberg, *Who is this Man?* 윤종석 역, 『예수는 누구인가?』(서울: 두란노, 2014), 82-85.

49)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28-46.

50) Raymond C. Ortlund, Jr., "Male-Female Equality and Male Headship," in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eds. John Piper & Wayne Grudem(Wheaton, IL.: Crossway Books, 1991), 63-64.

www.kci.go.kr

야만 한다(갈 3:28). 역할에 따른 기능에서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없다. 신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남녀의 동등성의 증거를 찾아보게 된다. 성령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행 2:17-18).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구성원으로 구별 없이 세례를 받으며(행 2;41), 남자와 여자 모두 몸 된 교회를 위한 영적 은사를 받는다(고전 12:7, 11; 벧전 4:10).[51]

3) 각자의 관계방식을 통해 교제하고 성적 차이를 가진 남자와 여자

성은 서로 구별되는 두 성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교류와 나눔이라는 관계적 의미를 독특하게 내포한다. 서로 다른 성으로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몸과 인격의 연합을 이루어 가면서 보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 동등하게 지어졌지만 각자의 성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이에 대한 원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관계의 질서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특별히 가정 내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삼위 안에 관계를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돕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52]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고 아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시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요 5:19-23, 36, 6:37-39, 8:28-29, 10:18, 12:49-50, 14:28, 17:1-5).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의 근본적인 출발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사실

---

51) Grudem, "The Key Issues in the Manhood-Womanhood Controversy, and the Way Forward," 21.

52) Packer, "God," *The New Dictionary of Theology*.

5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역 ·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8), 286-287.

www.kci.go.kr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논리가 유래(derivation)의 질서로 표현된다.53) 아버지는 어떤 다른 것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래된 것도 아니지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리고 이 신비적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 담겨 있는 머리됨(고전 15:24, 28)과 그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라는 질서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체가 나은 자와 나은 받은 자의 사랑의 관계이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머림 됨의 본질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 안에 주셨다"는 말씀에 드러난다. 아들의 순종의 본질은 그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행한다(요 14:31)는 말씀에서 나타난다. 머리됨의 능력도 사랑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동기도 부득이하거나 비굴함이 아닌 사랑이고 즐거운 마음의 선택이다(시 40:8; 요 4:34; 히 10:5-7).

이러한 삼위 사이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남자가 행하는 지도적 권위는 사랑이 담긴 것이다. 지배나 착취 혹은 자기중심이 아닌 권세이며 여자의 복종은 자기비하나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랑이 담긴 복종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타인 중심적인 관계이다. Crabb은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포함하여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해서 적용한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분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처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영성계발이란 곧 관계계발이다"라고 한다.[54]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의 삼위적 관계의 유비를 닮으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독특함이 드러난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은 내면 안에 새겨져 있고 그들 각자의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여성답고 남성다움이 표현된다. 건강한 인간됨은 여성다운 여자와 남성다운 남자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관계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방식을 구현하는 것이다. Crabb은

54) Crabb, 『에덴 남녀』, 36.

www.kci.go.kr

여자와 남자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성경적 관계방식의 내용을 정리한다. 남성다움에 중점을 두고 관계방식을 소개하면 ① 남성다운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고뇌를 들으셨던 것처럼 말이다). ② 남성다운 남자는 자기가 드러내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을 기억한다(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함을 안다). ③ 남성다운 남자는 타인의 고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그 부족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지만 최선의 일은 자신의 관계방식을 통해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는 것임을 안다). ④ 남성다운 남자는 타인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낸다.[55]

1) 남성다움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인 영향만이 아니고 성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사회 · 문화적 그리고 가정적으로 기대되고 학습되는 남자와 여자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전통적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생각과 태도 중에서 왜곡된 형태로 고착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성정체성과 비교하고 분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회복해 가야할 것이다.

Christopher T. Kilmatin은 남자는 '남자가 된다는 것' 에 대한 메시지를 성장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정의된 남성적 행동을 하게하고 여성적 행동을 피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55) Crabb, 『에덴 남녀』, 110-111. 여성다운 관계방식은 ① 통제하지 않고 초대한다. ②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연다. ③ 방어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 ④ 자기보호가 없이 당당하다로 설명한다.

www.kci.go.kr

남성성과 관련한 몇 가지 성격적 특성을 정리한다.

> 전형적 사나이의 성격특성: 강한, 거친, 독립적, 공격적, 성취적, 비감정적, 열심히 일하는, 육체적, 지배적, 경쟁적, 이성애적,
> 힘이 센 남성을 묘사하는 행동표현: 돈을 벌어들이는, 성관계를 주도하는, 문제 해결적인, 일이 되게 하는, 통제하는, 행동을 우선하는, 남성적 활동(사냥, 운동, 음주 등)을 즐기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 남성이 금해야하는 행동: 울기, 분노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기, 여성의 일을 수행하기(설거지, 기저귀 갈기), 맞서지 않고 꽁무니 빼기, 다른 남성들과 정서적으로 친해지기, 도움을 청하기, 여성적으로 행동하기[56]

권명수는 특히 한국인의 남성다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서구 보다도 더 심하고 강력한 모습을 이상으로 삼는 환경이었다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전투적 강한 남성상으로 요약되는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한국 남성들은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가족 부양자' 의 역할과 신체적 영역에서 '보호자' 의 역할, 성적인 면에서 '종족 번식자' 의 역할이다.[57] 이런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남성다움의 두 가지 요소만 살펴본다.[58]

---

56) Christopher T. Kilmartin, *The Masculine Self*, 김지현 외 공역, 『우리 안의 남성』(서울: 학지사, 2009), 22.

57) 권명수, "새 천년 한국 남성의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101.

58) 이관직은 예수님이 이상적인 남성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세 가지로 남성다움을 정리한다. ① 예수님은 용기 있는 남성이었다. ② 예수님은 섬길줄 아는 남성이었다. ③ 예수님은 감성적인 남자이었다고 말한다. 이관직, "회복해야 할 성경적 남성상", 「목회와 신학」 1998년 5월호, 60-66.

www.kci.go.kr

(1) 기억하고 책임지는 남자

남자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이 이브로 말미암았다거나 아담과 이브 모두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다고 말한다(롬5:1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59] 인간의 불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타락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대상 역시 아담이었다(창 3:8-9). 이 부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한다. 아담이 최초의 신앙과 가정의 공동체 내의 영적이고 도덕적 삶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듯이 죄의 현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했고 그로 인한 결과를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Crabb은 에덴에서 아담이 담당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남자의 책임을 이렇게 표현한다. "남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 남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지는 자신감과 지혜를 가지고 위험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60]

남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왜 기억해야 할지 알고 실제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זָכָר)가 "기억한다, 언급한다, 기록한다, 생각한다"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

59) 바울이 여기서 남자를 의미하는 ἀνήρ(아네르)가 아닌 총칭적 인간을 의미하는 ἀνθρώπου(안드로포)를 사용했다. 이것은 אָדָם(아담)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여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의 논지는 죄와 죽음이 많은 사람에 대비되고 예수님에 대비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60) Lawrence J. Crabb, *The Silence of Adam*, 정성묵 역, 『아담의 침묵』(서울: IVP, 2003), 15.

www.kci.go.kr

다는 점이다.[61] 여기서 하나님의 남자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존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억은 단지 잊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과 전달이라는 통로를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창세기 40:14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창 40:14). 여기서 자카르가 "아뢰어"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단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를 구해줄 수 있도록 어떤 행동과 말을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고 언급하고 행하는 책임 있는 남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남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역사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대면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으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의 결과(창 2:1-17)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다. 동일한 원리가 이후의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진다. 여전히 계시하시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남자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져가지고 채워가라는 명령이다.

둘째, 기억한 것을 전달해야 한다.[62] 자신의 삶에서 체험된 하나님과

61) Doug Ward, "The Biblical Concept of Remembrance," accessed on August 20, 2017, available at: http://graceandknowledge.faithweb.com/zakar.html. 또한 Crabb은 자카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단어는 왕의 비서관을 가리킬 때 쓰였다. 비서관은 왕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사인들을 왕에게 환기시켜 주는 중대한 특권을 받은 인물이었다. 점차 자카르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Crabb, 『에덴 남녀』, 94.

62)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나중에 너희의 자녀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훈령과 법도가 무엇이냐고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는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신 6:20-21).

www.kci.go.kr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남자의 책임을 수행한다. 기억한 것을 되살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전수한다. 남자는 세대와 세대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재자이다. 중재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억을 더욱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남자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거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John Piper 역시 남성다움에 대한 그의 연구를 통해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남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화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고 말한다.[63)]

남자가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문화나 사회이든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다. 남자의 책임 있는 삶에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남자의 역할이 경제적 부양 능력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남성이 설 자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우선 경제적 책임 능력이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실업, 실직, 조기 은퇴, 사업의 실패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 등은 남성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 남자들은 이 부분의 책임을 버거워하며 가정의 구성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또한 서구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듯이,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경제 활동이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활동에 집중되면서,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64)] 남자가 사회생활에 전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가정이나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

---

63) John Piper, *What's the Difference*, 송용자 역,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1990), 22.

64) E. Anthony Rotundo, *American Manhood: Transformations of Masculinity from the Revolution to the Modern Era* (New York: Basic Books, 1993), 3, 16-18; George A. Rekers, "Adolescent Development in American Culture," *Contemporary Psychology* 31, no.2(1986): 122-123.

www.kci.go.kr

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영향력은 실제로 쇠퇴하는 것이다.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외에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며 세속의 물결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골 2:19, 참고 엡 4:16)는 말씀과 같이 남자는 진리(엡 4:15, 21)와 능력(골 1:11), 지혜(골 2:3)와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엡 3;17-18, 4:16; 골 2:2).[65]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남자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 도덕, 가치. 미덕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모델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 사역자인 James Dobson은 현대 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남자가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돈을 버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66] 이러한 중심이 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남자의 내면에 대해서 Crabb은 무력감과 분노와 두려움에 차 있다고 통찰한다. 더불어 그런 내면의 싸움과 함께 외면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통제와 위협과 이기심이 드러난다.[67]

(2) 힘과 용기를 가진 남자

헬라어로 남자는 3개의 단어로 표현된다. '아네르' (ἀνήρ, 롬7:3), '아르센' (ἄρσεν, 롬1:27), '안드로포스' (ἀνθρώπῳ, 롬 5:19; 고전7:1)이다. 고전 16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한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ἀνδρίçομαι (안드리조마이)는 남자의 뜻을 가진 아네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남자답게 용기 있고 강하게 행하라"는 것이다. 구약에 대한 헬라어 번역판에서 주로 안드리조마이로 번역되는 חָזַק(하자크)라는 구약의 표현 역시 힘과 용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 Jonathan Stephen은 남성다움에 대한 성경적

65) Piper,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91-92.
66) James Dobson, *Straight Talk to Men and Women* (Waco, TX.: Word, 1980), 64.
67) Crabb, 『아담의 침묵』, 58.

www.kci.go.kr

연구를 정리하며, 남성다움은 "연약한 가운데서 깨어서 신중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68)]

남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아르센 역시 "들어 올리다. 짐을 지다"는 뜻이다. 즉 무엇인가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힘을 가리킨다.[69)] Crabb은 이것을 남성이 가진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이 에너지는 남자의 마음 속에 있는 본래적 추진력이자 특정 방식으로 삶 속에 진입하려는 힘과 충동으로 본다. 이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살 때 남자답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억압되거나 왜곡되면 남자답지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힘과 용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힘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삼상 26:15)는 깨어 있는 분별력을 포함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강하고 용기 있게 잘 견디고 행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관직은 예수님이 이상적인 남성상이 되심을 전제하며 예수님은 용기를 가진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70)] 특히 그 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불의에 분노하시고 용기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신다. 반면에 소외되고 부정하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셨다.[71)]

당시로서는 그려 보기 힘든 예수님의 용기를 대변하는 모습 중의 하

---

68) Jonathan Stephen, "네가 용사가 아니냐?", *Men, Women an Authority*, 이은순 역, 『남성과 여성』, Andrew Anderson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14–215.

69) Crabb, 『에덴 남녀』, 95.

70) 이관직, "회복해야 할 성경적 남성상", 60–66.

71) Helmu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Sex*, trans. John W. Doberstein(Grand Rapids, MI.: Eerdmans, 1981), 9.

www.kci.go.kr

나는 여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 이는 유대교의 여성 이해에 반기를 드는 혁명적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여성과의 만남을 꺼려하지 않으셨다. 가나안 여인의 딸(마 15:21 이하; 막 7:24), 베드로의 장모(마 8:14), 막달라 마리아(눅 8:2), 야이로의 딸(마 9:18)을 치료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조차도 긍휼이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며(요 7:53–8: 11) 창녀들에게도 애정을 베푸셨다(눅 7:36).

III. 닫는 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로 이해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존귀함 그리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논문은 우선 성과 관련된 인간됨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폈다. 개인 영성의 차원에서, 사회 · 문화 곳곳에서, 그리고 가정, 교육 그리고 상담현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토대가 무너져 버릴 때 삶의 다양한 현장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더욱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온전한 성적 정체성의 회복을 소망하며 성경의 답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 되심의 성격을 남자와 여자됨에 적용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인간은 그 존재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었고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나 문화라는 환경이나 교육 또는 전통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www.kci.go.kr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그러하셨든 상호협조와 상호존중의 원리로 서로 관계하며 존재한다.

둘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하듯 동등할 뿐 아니라 그 동등함으로 인해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서 충족을 받는 존재이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적 전통의 사회와 개인이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며, 여성우월주의나 남성의 역차별을 겪는 현장 역시 이해해야 하는 원리이다. 셋째,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자가 지향해야 할 독특한 자기 성다움이 있다.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독특하고도 탁월한 능력이고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된 구별된 사명과도 같은 것이다. 더구나 모호하고 기준이 희박해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해는 기독교상담의 목표설정과 인간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야할 연구의 내용이다. 논문은 우선 남성다움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이 자기 성에 맞는 남자와 여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정리하고 나누며 전인의 영역과 연관된 성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바라기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발전된 연구가 지속되어 상담자와 내담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권명수. “새 천년 한국 남성의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권(2002): 95-130.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3.

길원평 · 류혜옥. “동성애 유발요인과 기독교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4호(2013): 33-48.

김성환.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126-150.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김영희. “크리스천의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 God-images를 중심으로 한 목회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9권(2007): 31~67

심수명.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개념 및 그 적용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2006): 200~234.

이관직. “회복해야 할 성경적 남성상”. 「목회와 신학」 1998년 5월호, 60-66.

이관직.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심리체계적 접근”.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권(2002): 131-156.

전요섭.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321~346.

정동섭. “남성심리와 여성심리”. 침례신학대학교. 「복음과 실천」 제17집(1994): 401-427.

Atkinson, Joseph C. *Biblical & Theological Foundation of the Family: The Domestic Church*.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4.

Anderson, Andrew 편. *Men, Women an Authority*. 이은순 역. 『남성과 여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Bem, Sand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1974): 155-162.

www.kci.go.kr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권수역 · 이상원 역. 『조직신학: 상』.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Bird, Phyllis. "Images of Women in the Old Testament." In *Religion and Sexism*. Ed. Resemany R. Rueth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74.

Brunner, Emil.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52.

Calvin, John. *Genesi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5.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Carver, Charles S. & Michael F. Scheier. *Perspectives on Personality*. 7th ed. 김교헌 역.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 서울: 학지사, 2012.

Crabb, Larry. *The Silence of Adam*. 정성묵 역. 『아담의 침묵』. 서울: IVP, 2003.

Crabb, Larry. *Fully Alive*. 윤종석 역. 『에덴 남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4.

Dobson, James. *Straight Talk to Men and Women*. Waco, TX.: Word, 1980.

Eichler, Raanan. "Gender Equality at Creation." *The Torah*. Accessed on August 25, 2017. Available at: http://thetorah.com/gender-equality-at-creation.

Gorski, Roger A. "Sexual Differentiation of the Brain." *Hospital Practice* 13, no.10(1978): 55-62.

Grenz, Stanley J. *Sexual Ethics*. 남정우 역. 『성윤리학』. 서울: 살림, 2003.

Grudem, Wayne, Ed. *Biblical Foundations for Manhood and Womanhood*.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2.

Heubeck, Elizabeth. "How Male and Female Brains Differ: Researchers Reveal Sex Differences in the Brain's Form and Function." Accessed on September 09, 2017. Available at: www.medicinenet.com/script/main/art.asp?articlekey=50512.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Kagan, Jerome. *The Temperamental Thread*. 김병화 역. 『성격의 발견』. 서울: 시공사, 2011.

Kilmartin, Christopher T. *The Masculine Self*. 김지현 외 공역. 『우리 안의 남

www.kci.go.kr

성』. 서울: 학지사, 2009.

Larimore, Walt & Barb Larimore. *His Brain, Her Brain*. 임신희 역. 『그 남자의 테스 토스테론 vs.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 서울: 살림, 2008.

Ortberg, John. *Who is this Man?* 윤종석 역. 『예수는 누구인가?』. 서울: 두란노, 2014.

Packer, James I. "God." *The New Dictionary of Theology*.

Parrott, Les & Leslie Parrott. *Real Relationships*. 서원희 역. 『5가지 친밀한 관계』. 서울: 이레서원, 2011.

Piper, John & Wayne Grudem, Eds.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Wheaton, IL.: Crossway Books, 1991.

Piper, John. *What's the Difference*. 송용자 역.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90.

Rekers, George A. "Adolescent Development in American Culture." *Contemporary Psychology* 31, no.2(1986): 122-123.

Rosenzweig, Michael L. "A Helper-Equal to Him." *Judaism* 35, no.3(1986): 277-280.

Rotundo, E. Anthony. *American Manhood: Transformations of Masculinity from the Revolution to the Modern Era*. New York: Basic Books, 1993.

Sapp, Stephen. *Sexuality the Bible, and Scienc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7.

Stott, John R. 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9.

Thielicke, Helmut. *Theological Ethics: Sex*. Trans. John W. Doberstei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1.

Trible, Phyllis.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8.

Trible, Phyllis. "Eve and Adam: Genesis 2-3 Reread." In *Woman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 Eds. Carol P. Christ & Judith Plaskow.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79.

Ulanov, Ann Belford. *Feminine in Jungian Psychology and in Christian Theolog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Van Leewen, Mary Stewart. *Gender and Grace*. 윤귀남 역. 『신앙의 눈으로

www.kci.go.kr

본 남성과 여성』. 서울: IVP, 1999.

Ward, Doug. "The Biblical Concept of Remembrance." Accessed on August 20, 2017. Available at: http://graceandknowledge.faithweb.com/zakar.html.

Weber, Otto. *Karl Barth's Church Dogmatics*. 김광식 역.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Wenham, Gordon J.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es 1-15*. Waco, TX.: Word, 1987.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성소수자_권리).

www.kci.go.kr

【 Abstract 】

Recovery of Biblical Sexual Identity: Focused on the Image of God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Counseling emphasizes that the endowed image of God when He created human-being has been corrupted and needs to be restored. As a result, the main purpose in the field of counseling should be to restore the image of God. This paper claims that the specific sexual identity of male and female in the image of God should be studied in detail, and needs to be main goal of counseling. It stresses the holistic nature of sexuality, and the reality and causes (spiritual, socio-cultural, family, education & counseling) of how sexual problems develop into human problems. In order for studies about sexuality to be utilized in the field of counseling, the idea of "we" in the image of God has to be studied.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Trinitarian and "we" is based on male, female, and their relationships. First, men and women are distinct sexual beings, but become one. Second, men and women are equal as partners. Third, men and women relate to each other with their way of relation; sexual differences allow this to happen. The paper, then, discusses the main points of manhood. God's original intention in creation of men was to build up men who remember and take responsibility, and men who have strength and courage.

Key words: male, female, the image of God, sexual identity,

www.kci.go.kr